

제주4·3 전개과정에서의 5·10선거의 의미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허호준**

중심어: 제주4·3 봉기, 5·10선거, 초토화작전, 대량학살, 강경진압

(국문초록)

이 글은 기본적으로 제주4·3의 전개과정에서 있었던 5·10선거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국이 제주4·3의 전개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한미군사령부와 미군정은 5·10선거의 성공적인 실시를 한반도 점령기간 중에 수행하게 될 핵심적인 사안으로 인식하고, 선거의 성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남한에서 유일하게 5·10선거가 실패한 지역으로 남았다. 4·3 주도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 5·10선거의 저지가 제주 4·3 봉기의 1차적인 목표였으며, 미국의 입장에서는 5·10선거의 실패가 민간인 대량학살을 초래한 강경진압의 한 원인이 됐다. 미국은 초토화작전 시기 제주도민에 대한 대량학살을 알고 있었으나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미국의 관심은 공산주의 세력의 저지와 1949년 5·10재선거의 성공적인 실시였다고 할 수 있다.

* 이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께 감사드린다.

** 제주4·3연구소 연구실장

I. 머리말

해방공간에서 일어난 제주4·3은 사건의 지속성, 학살의 규모면에서 남한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이다.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와 함께 사망자만 25,000-30,000여명에 이르는 제주4·3의 피해의 여진은 6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주사회에 미치고 있다.

왜 한반도 최남단 제주에서 이러한 대량학살이 일어났는가. 제주4·3은 미군정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이유로 미국의 개입을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4·3 진압과정에서 일어난 무차별 학살사건의 한축이 이승만 정권에 있다면, 또 한축은 미국에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찾아든 냉전은 트루먼 독트린과 봉쇄전략에 의해서 공식화되었고, 미국의 대소 정책은 소련의 팽창에 맞서 적극적인 저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트루먼 행정부의 대한정책의 목표도 또한 대소 봉쇄였으며, 한국에서의 미국의 입지 강화와 소련의 외교적 후퇴를 겨냥한 것이었다(오재완 1991, 158-16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점령지역에서 4·3과 같은 폭력적 민중저항은 어느 곳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다(Merrill 1991, 53-54).

제주4·3 발발의 직접 원인은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탄압과 함께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해 1948년 5월 10일 치러진 이른바 ‘5·10선거’의 반대였다. 이 선거는 해방 3년사의 미국의 점령정책을 평가하는 최종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미국의 대소 전략과 맞물려 있었다. 1947년 8월 4일자 미국의 대한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SWNCC 176/30은 “미국은 현시기 한반도가 공산주의의 지배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철수할 수 없다. 이에 따른 정치적 반향은 극동과 전세계에서의 미국의 위신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미국이 지지하는 대내외의 공산주의자들의 압력에 저항하는 소국가들의 의욕을 꺾을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이 문서는 미·소 공동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모스크바 협정의 목적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한국인 스스로 임시정부를 수립하며, 유엔의

선거감시와 임시정부 수립에 관련된 기타 사항들을 제안하고, 임시정부와 4대국 사이의 협의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 단계별 제안을 하고, 소련이 미국의 제안을 거부한다면 미국 정부는 한국문제를 차기 유엔 총회에 상정할 것을 모스크바협정 관계국들에게 알리고, 총회 안건으로 만들기 위해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FRUS VI 1947, 738-741). 이후 소련의 미국 쪽 제안 거부로 미국은 1947년 9월 17일 한반도 문제를 유엔 총회에 상정할 것을 제의했으며, 1947년 11월 14일 열린 총회에서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 실시와 미·소 양군의 철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유엔조선위원단(임명삼 옮김) 1984). 미국이 이처럼 분단정권 수립을 의미하는 단정전략을 추진하게 된 것은 미군 철수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남한 국가와 이승만 정권을 대소 봉쇄의 도구로 활용하자는 것이었다(오재완 1991, 163).

주한미군사령부는 5·10선거의 성공적인 실시를 한반도 점령기간 중에 수행하게 될 핵심적인 사안으로 인식하고,¹⁾ 4·3봉기로 제주도에서의 5·10선거의 정상적인 실시가 위태로워지자 대대적인 병력 파견 등 작전을 벌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한미군과 미군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남한에서 유일하게 5·10선거가 실패한 지역으로 남았다. 4·3 주도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 4·3의 발발은 5·10선거의 저지가 1차적인 목표였으며, 미국의 입장에서 5·10선거의 실패가 민간인 대량학살을 초래한 강경진압의 한 원인이 됐다. 5·10선거가 실패한 뒤 미군정과 미국은 4·3의 심각성을 인식했고, ‘공산주의 세력의 지지’를 통한 대소 봉쇄를 위해 강력한 진압작전을 실시했다.

제주도 유사 이래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4·3의 전개과정 중심부에는 남한의 유일정부라고 자처한 미군정과 미국이 있었으며, 미군정은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좌익의 강력한 근거지’인 제주도에 대한 진압의 강도를 더했다. 4·3의 전개과정에서 미국의 역할 조명을 통해 해방공간에서 왜 수많

1) Inclosure No. 1, Despatch No. 85, Telegram, Subj: Orders Issued by USAFIK and USAMGIK regarding South Korean elections, Hodge, CG. USAFIK to CG. 6th Division, 7th Division, Military Government, Korea Base Command, 2 April 1948, Joseph E. 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9 April 1948.

은 제주민이 학살돼야 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사령부의 정보보고서와 미국무성 문서는 물론 개인적으로 입수한 제9연대의 전투일지 및 그동안 거의 인용되지 않았던 미국신문 등도 참고했다.

II. 미군정의 초기 실책과 5·10선거

1. 3·1사건과 3·10 총파업: 미군정의 인식

미군정과 제주도민의 본격적인 충돌은 1947년 3월 1일의 제28주년 3·1절 제주도 기념대회 때 시작되었다. 제주읍과 애월면, 조천면 주민 등 3만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북초등학교에서 기념대회가 열려 평화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의 발포로 초등학교생에서부터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6명의 주민이 희생됐다.²⁾

미군정의 시위대 해산 지원과 경찰의 증원으로 3·1절 기념대회 소요는 가라앉았으나 제주도 사회는 긴장감이 팽배했다.³⁾ 당시 시위 현장에 있었던 강상문은 “3·1운동을 누가 선동했는지는 몰라도 가서 사람 죽는 것까지도 구경했다. 나도 북교까지 들어가서 보고, 파트럿지인가 하는 그 양반이 지금 북교 동넱편에서 지프 위에다가 공포를 쏘라고 했다”고 기억한다(제주4·3연구소 2002, 122-123). 그러나 경찰이 3·1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에 들어가기는커녕 오히려 시위 참가자들을 무차별 연행(『제주신보』 1947.3.8)하자 제주도청 직원들은 3월 10일 ‘제주도청 3·1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제주도 민정장관 스타우트(Thurman A. Stout) 소령과 주한미군사령관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보내는 6개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파업에 들어갔다(『제주신보』 1947.3.12).⁴⁾ 이 파업에는 제주군정청 한국인 관리의

2) 제주신보사는 1947년 3월 10일자에 “희생자는 독립의 영광도 얻지 못한 채 천고의 원한을 남기고 무참히 쓰러진 것”이라며 3·1사건 희생자 유가족을 위한 조의금을 모집하는 사고를 냈다(『제주신보』 1947.3.10).

3)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469, 3 March 1947.

4) 제주도청 직원들의 요구조건은 ① 무장과 고문의 즉각 폐지 ② 발포 책임자 및 발포

60-75%와 156개 기관·단체가 파업에 참여했고, 이로 인해 금융과 교통, 제조업, 교육, 식량배급 등의 업무가 마비되었다.⁵⁾ 이 파업은 남한 사회에서 전무후무한 민관총파업으로서, 당시 미군정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불만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폭발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군 방첩대(CIC: Counter Intelligence Corps)는 “제주도의 총파업이 남한 전역의 파업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시급석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으며,⁶⁾ 미극동군사령부의 정보요약문은 제주도의 총파업을 가리켜 “좌익의 남한에 대한 조직적인 전술임이 드러났다”고 분석하고 제주도를 ‘좌익의 근거지’로 간주했다.⁷⁾

3·1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3월 8일 중앙 미군정청 특별감찰실장 카스텔(James A. Casteel) 대령 일행이 제주도에서 현장조사와 기념대회 집행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제주신보』 1947.3.12)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러치 군정장관도 3월 13일 기자들과의 정례회견 자리에서 “아직 보고가 없어 모르겠으나 추후 조사하여 보겠다”고만 말했다(『독립신보』 1947.3.14). 이어 파업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러치 군정장관의 회견 다음날 경무부장 조병옥이 제주도를 방문했으며, 이에 맞춰 파업주도자들에 대한 검거에 들어가 닷새 만에 200여명을 검거했다(『제주신보』 1947.3.20). 조병옥이 제주도를 방문한 다음날에는 전남·북 응원경찰이 파견됐고, 18일에는 경기도 응원경찰 등 모두 421명의 응원경찰이 제주도에 들어와 삼엄한 경계망을 폈다(『독립신보』 1947.4.5). 경찰의 발포로 주민 6명이 희생되고, 민관총파업으로 제주도민들의 반발이 거셌으나, 미군정 경찰은 물리력의 증원을 통해 진압에 나섰으며, 미군은 이데올로기적 시각으로만 3·1사건을 보았다.

3·1사건에 대한 미군정의 시각은 대대적인 검거바람이 불던 3월 20일

경관의 처벌 ③ 경찰 수뇌부의 인책 사임 ④ 희생자 유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생활 보장 ⑤ 3·1사건 관련 애국인사의 검거 중지 ⑥ 일본 경관의 유업적 계승활동 지양이다.

5) 『독립신보』 1947.4.5 ;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79, 16 March 1947 ;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512, 14 March 1947.

6) CIC-Korea, Subj ; CIC Semi Monthly Report No. 7, 16 March 1947 to 31 March 1947, pp.3-4.

7) FEC, Intelligence Summary No. 1767, 3 April 1947.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드러났다. 담화문의 요지는 제1구 경찰서(제주경찰서)에서 발표한 행위는 치안유지의 대국에 입각한 정당방위로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이 담화문은 경무부장과 제주도지사, 제주도 민정장관 등 3자가 임명한 ‘제주읍 3·1절 발포사건조사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으로, 조사위원회는 제주지방검찰청장 박종훈, 제주읍내 박명효, 제주고녀 교장 홍순녕, 경무부 공안국 부국장 장영복, 경무부 수사국 고문관 쇼터 대위로 구성됐다(『대동신문』 1947.3.21). 카스텔 대령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문 작성에 고문관 자격으로 미군 대위가 포함된 것은 3·1사건에 대한 미군정의 시각을 대변한다. 담화문 발표와 함께 조병옥은 “제주도 사건은 북조선 세력과 통토하고 미군정을 전복하여 사회적 혼란을 유지하려는 책동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것”으로 단정지었다(『독립신보』 1947.3.21). 그러나 조병옥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제주도의 총파업은 3월 하순에 이르러 표면적으로는 진정국면에 들어갔으나, 총파업과 관련해 검거된 인원은 4월 10일까지 500여명에 이를 정도로 사회적 긴장감이 높아가고 있었다(『제주신보』 1947.4.12). 미군정은 3·1절 발포사건을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제주도를 좌익 거점으로 간주하는 한편 총파업을 남한내 파업의 시금석이라고 평가함으로써, 제주도민을 탄압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했던 것이다. 사건의 본질을 꿰뚫지 못한 미군정의 미숙하고 무모한 대응은 ‘4·3’으로 가는 도화선이 되었다.

한편, 이 시기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는 사실에서 “워싱턴, 아테네, 이스탄불에서 멀리 떨어진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 작은 국가의 미래가 그리스나 터키, 남동부 유럽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세계평화에 중요하다. 바로 한국이다”고 지적했다(1947.3.13)

2. 4·3봉기와 5·10선거 실시: 미군정의 실정과 강경정책

3·1사건과 민관총파업, 대량 검거사태로 제주사회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미군정은 4월 7일 제주 출신 박경훈 제주도지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한독당 농림부장 출신의 유혜진을 임명했다. CIC가 극우파 인물로 분류⁸⁾한 유혜진 지사는 부임에 앞서 “극좌와 극우를 배제한 행정을

추진하겠다”(『제주신보』 1947.4.22)고 언급한 것과는 달리 극단적인 우익강화정책을 폈으며, 이는 4·3 발발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그의 우익강화정책으로 제주지역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미군정은 유 지사에 대해 특별감찰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남조선과도정부 수석고문관 존슨(Edgar A. J. Johnson)이 지시하고 중앙미군정청 특별감찰실 소속 감찰관 넬슨(Lawrence A. Nelson) 중령이 실시한 이 특별감찰활동은 1947년 11월 12일부터 1948년 2월 28일까지 제주도 제59군정중대와 유해진 지사 등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⁹⁾ 이 감찰조사에서 제주도 제59군정중대 법무관 스티븐슨(Samuel J. Stevenson) 대위는 11월 21일 “유 지사가 한민당이나 독립촉성중앙협의회의 의견과 다른 인사를 좌익분자로 분류하는 극우 슬로건을 채택하고 있다”며 “극우단체의 테러와 경찰의 좌익탄압이 제주도민들을 좌익으로 기울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본토 출신 경찰들이 좌익을 동정하고 좌익감정을 불리일으키도록 하는데 상당부분 책임이 있으며, 심사숙고하지 않은 채 정치적 인사들을 체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표면적으로는 현 정치상황이 비교적 조용하지만 중도 및 온건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이 이들 단체를 극좌로 빠지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해 파괴활동을 부추길 것으로 믿는다”고 진술했다. 이 주목할만한 미군정 장교의 발언은 유해진의 극단적인 우익강화정책이 4개월여 뒤에 일어난 4·3봉기에 제주도민들을 내몰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시사하고 있다. CIC도 유 지사를 매우 독단적이고 자신과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좌익인사로 규정한다고 평가했으며,¹⁰⁾ 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이 빠른 시일 안에 ‘정의’(justice)를 회복하지 못하면 모든 단체들이 제주경찰감찰청을 공격할 것이라고 예견했다.¹¹⁾ 유 지사의 우익강화정책은 그 스스로의 입을 통해서도 나온다. 그는

8) 유해진의 우익강화정책으로 인해, 그의 암살을 요구하는 유인물도 살포됐다.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601, 7 August 1947.

9) Report of Special Investigation—CHEJUDO POLITICAL SITUATION Conducted by Lawrence A. Nelson, Lt. Col., Special Investigator, Hq. USAMGIK, 12 November 1947-28 February 1948(이하 Nelson Report).

10) Subj: Governor RYU, Hai Chin, Activities of. Henry C. Merritt, CIC to Lt. Col. Nelson, OSI, USAMGIK, 21 November 1947, Nelson Report.

11)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708, 13 Dec 1947.

넬슨 중령에게 스스로 일반 대중을 극좌단체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극우 단체의 힘을 빌려 조직과 선전활동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¹²⁾

이러한 감찰활동을 통해 넬슨 중령은 “유 지사가 무모하고 독재적인 방법으로 정치이념을 통제하려는 헛된 시도를 해왔고, 좌파를 지하로 몰고 갔으며, 결국 그들의 활동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한편 경찰은 수없이 테러행위를 자행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1948년 3월 11일 군정장관 딘 소장에게 4개항의 건의사항을 포함한 감찰보고서를 제출했다. 건의내용은 첫째, 유 지사의 경질, 둘째, 제주도 경찰에 대한 경무부의 조사, 셋째, 미 경찰고문관의 제59군정사령부 및 사령부 중대 임무의 동시 수행, 넷째, 과밀 유치장에 대한 사법부의 조사 등이었다. 딘 군정장관은 이들 건의사항 가운데 3개항은 받아들였으나, 유 지사의 경질 건의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유 지사가 감찰조사를 받던 도중 남조선과도정부 수석고문관 존슨의 유 지사 면직 건의에 대해서도 딘은 1947년 12월 3일 “도지사에 대한 면직은 간단하지 않고, 내각과 민정장관 안재홍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며 거부했다.¹³⁾ 하지 중장은 지사·청장회의에서 정치적 이유로 억압정책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시했으나(『서울신문』 1948.3.14), 딘 군정장관은 특별감찰활동을 통해 상당한 과오가 드러난 유해진을 유임시켰던 것이다. 이는 유해진의 지사직 존속이 경질건의 시점에서 불과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5·10선거의 성공적인 실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미군정 수뇌부의 의지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¹⁴⁾

유 지사의 극단적 우익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경찰에 의해 1948년 3월 6일 조천중학원 2년생 김용철, 14일에 대정면 영락리 출신 양은하가 고문치사 당하고, 3월 말에 한림면 금릉리 출신 박행구가 총살당하는 등 3건의

12) Testimony of: Governor RYU, Hai Chin, taken by Lt. Col. Lawrence A. Nelson, Special Investigator, Date: 18-19 Feb 1948, Nelson Report.

13) Inter-Staff Routing Slip, Memo No. 1, Deputy Military Governor to OCA, 3 Dec 1947. 이에 앞서 딘 군정장관은 1947년 11월 말 제주도를 방문해 유 지사를 만났다.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698, 2 Dec 1947.

14) 유해진 지사의 경질을 꺼려했던 미군정은 결국 5·10선거가 실패한 뒤인 1948년 6월 유해진을 경질했고, 공보원은 6월 3일자로 유해진의 후임인 임관호의 지사 임명 소식 내용을 담은 ‘호의’를 발행하고, 이를 비행기를 통해 제주도 전역에 뿌렸다.

고문치사 및 총살사건이 잇따랐다. 김용철의 고문치사 소식을 전해들은 조천중학원생들은 조천지서 앞에 몰려가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항의집회를 열다가 또다시 붙잡혀 들어가기도 했다.¹⁵⁾ 김용철 고문치사사건은 중앙 미군정청과 선거감시를 위해 남한에 온 유엔조선임시위원단(UNTCOK)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미군정청 사법부 소속 민간인 변호사 매기(Thomas Magee)가 진상조사를 위해 3월 22일 제주에 파견됐고,¹⁶⁾ 4월 15일에는 UNTCOK의 프랑스 대표 마네(Manet)가 던 군정장관에게 사건의 경과를 묻기도 했다.¹⁷⁾

경찰과 서청의 행패, 유 지사의 우익강화정책으로 제주도민들의 민심이 극도로 악화된 가운데 4월 3일, 무장대는 “탄압이면 항쟁이다”며 단선·단정 반대와 통일국가 수립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11개 지서 및 우익단체 간부의 집과 사무실을 공격하면서 ‘4·3항쟁’을 단행했다(김봉현·김민주 1967).

하지 중장이 4월 2일 산하 지휘관들에게 성공적인 선거 실시가 미사절단의 핵심적인(essential) 성과라고 강조하고, 군정장관이 선거의 감시 및 집행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전문¹⁸⁾을 보낸 다음날 무장봉기가 감행된 것이었다.

UNTCOK 사무국 차장 밀너(I. Milner)는 4월 7일 제주도의 치안상황에 대해 민감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4월 9일로 예정된 UNTCOK의 제주도 방문을 우려하자 미연락장교 웨커링(John Weckerling) 준장은 4월 8일 그를 만나 “경찰 증원뿐 아니라 제주도 주둔 경비대도 예비부대로 남아있다”며 “상황이 잘 통제되고 있다”고 안심시켰다.¹⁹⁾ 이러한 밀너와 웨커링 준장간의

15) 김민주(재일동포·당시 조천중학원생) 구술채록(2007.8.1).

16) John W. Connelly Jr., Major, USAMGIK to CO. 2nd Platoon, Company F, 20th Regiment, Pass to: CCAO, Chejudo, Undated, RG 338, NARA, USA.

17) U.N. Document, A/AC.19/SR.4, 17 April 1948, RG 338, NARA, USA.

18) Inclosure No. 1, Telegram, Hodge to CG, 6th Division, 7th Division, Military Government, Korea Base Command, April 2, 1948, Despatch No. 85, Subj: Orders Issued by USAFIK and USAMGIK Regarding South Korean Elections. 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April 9, 1948.

19) Memorandum for General Hodge, Subj: Daily Report of UNTCOK Activities, Thursday 8 April, John Weckerling to Hodge, 9 April 1948, RG 338, NARA, USA.

대화 내용을 담은 비망록은 하지 중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주한미군사령부 및 군정 당국, UNTCOK의 제주도 사태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웨커링 준장이 밀너에게 말한 지 이틀 뒤인 4월 10일 국립경찰전문학교 간부후보생 100명이 2차 응원대로 파견됐다(『동광신문』 1948.4.13). 이에 앞서 4월 5일에는 전남경찰 100명이 파견됐다. 하지 중장은 투표율이 좋지 않으면 남한 정부는 압도적인 국제적 승인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Matray(구대열 역) 1989, 180). 미국의 언론들은 이 시기 제주4·3의 사태 추이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며 비중있게 다뤘다. 『뉴욕타임즈』는 4월 11일 남한 정부 수립을 위한 유권자 등록 상황을 보도하면서 “제주도에서는 닷새 동안의 폭동으로 20명이 희생됐지만, 미군 당국은 이를 선거인 등록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1948.4.11).

4월 초·중순 무장대의 공세에 이어 4월 말에 이르자 미군정의 강력한 토벌작전이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진압작전도 경찰에서 경비대로 무게중심이 옮겨졌다. 4월 15일 UNTCOK 회의에 참석해 제주도 사태에 대한 위원들의 발언²⁰⁾을 들은 딘 소장은 UNTCOK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제주도의 무장봉기세력을 제거해 5·10선거를 성공시키기 위해 다음날 해안경비대와 국방경비대에 제주도 합동작전을 명령했다.²¹⁾ 합동작전은 해안경비대의 지원을 받아 경비대 1개 대대를 4월 20일까지 제주도에 파견해 전투를 준비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제3여단 고문관 드로이스(Clarence D. DeReus) 대위가 고문관으로 작전에 참가하도록 명령을 받았고, 제주도로 파견된 경비대 대대에는 기관총과 카빈, 탄약을 보급했다.

이어 딘 소장은 4월 18일 연락용 비행기 L-5 2대를 보내 제주도 민정장관 맨스필드(John S. Mansfield) 중령의 작전통제 하에 두었으며,²²⁾ 4월 20일

20) Memorandum for General Hodge, Subj: Report of Daily UNTCOK Activities for Thursday, 15 April, John Weckerling, 16 April 1948, RG 338, NARA, USA.

21) MGDIS 92 170917Z, MESSAGE, prepared by Terrill E. Price, Advisor to Director,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 USAMGIK to CG, 11th Medium Port, Pass to: Captain Clarence D. DeReus, Advisor, 3rd Brigade, Korean Constabulary, Info: CG, 6th Div, 17 April 1948, RG 338, NARA, USA.

22) Subj: Cheju-Do Operations, William F. Dean, Major General, Military Governor to Chief Civil Affairs Officer, 59th Military Government Company, 18 April 1948, RG 338, NARA, USA.

‘제주도의 파괴분자를 섬멸하고, 법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제주도의 토벌대도 맨스필드 중령의 작전 지휘를 받도록 했다. 또한 대대적인 공격을 단행하기에 앞서 무장대 지도부와 접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항복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 이는 제9연대장 김익렬과 무장대 지도자 김달삼 간의 이른바 ‘4·28평화협상’으로 나타난다. 이와 동시에 하지 중장은 미군 제6사단장에게 전문을 보내 이 작전에 모든 가능한 지원을 맨스필드 중령에게 하도록 하는 한편 공격을 받지 않는 한 미군부대는 개입하지 말도록 지시했다.²³⁾ 이들 전문은 미군정과 경비대와의 관계, 제주도 소요 진압에 대한 미군정의 역할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제24군단 작전참모부 슈(M. W. Schewe)중령은 평화협상이 열리기 전날인 4월 27일 제주도를 방문해 무장대의 진압과 주민 장악에 대한 맨스필드 중령의 계획을 확인했다.²⁴⁾ 슈 중령은 제주도 상황에 대해 1948년 4월 28일 이전의 작전은 상황을 정당화할 만큼 공격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는 지금이라도 강경 진압정책을 피야만 선거의 성공적인 실시와 남한내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척결하는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5월 2일 미군 연락기는 무장대들의 활동을 관찰했으며, 경찰 응원대는 제주도 사태를 ‘전면적인 게릴라전’(full-scale guerrilla warfare)으로 보고 진압을 강화해 나갔다.²⁵⁾ 미군정은 제주도 소요가 ‘심각한 상황’(serious situation)을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공산주의 활동이 증가하는 것 같다고 보고했다(『Washington Post』 1948.4.24). 『뉴욕타임즈』는 같은 날 “제주도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선거등록 사무소를 공격해 9명의 경찰을 포함한 49명이 지난 2주 동안 희생됐다”고 보도했고(1948.4.24), 『로스엔젤레스타임즈』(Los Angeles Times)도 같은 날 “제주도 폭동은 미국 점령지역인 남한에서 유엔 감시 하에 치르는 5·10 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새로운 움직임과 일치했다”고 보도했다(1948.4.24). 이러한 미국 언론의 보도는 대부분 제주도 사태를 단일 기사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나 소련의 동향을 같은 기사에 포함시킴으

23) CG. XXIV Corps to CG. 6th Inf. Div, Co, 59th MG(Chejudo), Undated, RG 338, NARA, USA.

24) Subj: Report of Activities at Chejudo Island. Lt. Col. Schewe, G-3 to Col. A. C. Tychen, A/C of G-3, 29 April, 1948, RG 338, NARA, USA.

25) Hq. 7th Div, G-2 Periodic Report No. 105, 5 May 1948.

로써 소련과의 연계성을 암시하는 듯한 보도태도를 보였다. 실제로, 『뉴욕 타임즈』는 1948년 5월 3일자 사설을 통해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지간에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소련은 조선을 흡수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소련의 의도는 (한반도) 북쪽에 수립한 괴뢰 정부의 최근 움직임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는 현재 미국 점령 지역까지도 포함해 소련 장악 하의 (남북한) 단일국가를 선포하는 것이다. 사실상, 이는 내전으로 가는 길이다. 이미 제주도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선거 저지를 위해 살인적인 게릴라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 신문은 존스톤(Richard J. H. Johnston)이 쓴 ‘게릴라전(small war), 한국의 섬에서 맹위 떨쳐’라는 기사를 통해 공산주의자들이 경찰 무기의 압수, 경찰 처벌, 진압군 처벌, 유엔이 지원하는 5·10선거의 철회 보장 등 5개항의 항복요구 사항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신문은 “스탈린이 유엔 감독하의 선거를 사보타주하기 위한 노력에 유격전을 더하고 있다”며 제주도 사태를 예로 들었다(『Washington News』 1948.5.5). 5·10선거를 열흘 남짓 앞두고 4월 29일에 이어 5월 5일 다시 제주도에 내려온 딘 군정장관이 김익렬 연대장을 박진경 연대장으로 교체했다. 5·10선거를 앞둔 지극히 중요한 시기에 그의 두차례의 제주도 방문은 제주도 사건이 안고 있는 폭발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같은 날 서울로 올라간 딘 군정장관은 서울에서 제주도 사태를 “5·10 선거에 반대하는 북조선 공산군 간자(間者)에 의한 사주로 일어난 것”으로 인식했다(『우리신문』 1948.5.8). 『워싱턴포스트』도 “딘 소장이 제주도 시찰을 마친 뒤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제주도에 상륙해 선거반대 테러 과정에서 게릴라들을 지휘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1948.5.7).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으나, 미국무성과 군부의 정책결정자들은 미국의 언론에 보도되는 제주도 사태를 주시했을 것이다.

Ⅲ. 5·10선거의 실패와 미군정의 공세

1. 제주도 5·10선거의 실패

좌익의 선거반대와 대부분의 우익 및 중도파가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5·10선거는 미군정과 이승만 계열에 의해 주도적으로 준비되고 실행됐다. 이들은 선거의 ‘자유 분위기’(free atmosphere)보다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경찰과 우익청년단체를 효과적으로 이용했다(Matray (구대열 역) 1989, 166).

국회선거위원회는 1948년 4월 9일 마감된 선거등록 결과 모두 805만 5,798명이 등록하여 등록률이 91.7%라고 4월 14일 발표했다.²⁶⁾ 이러한 선거등록 결과에 대해 하지 중장은 4월 13일 성명을 내고 “전유권자의 90% 이상이 등록을 완료하였으므로 5월 10일 시행될 총선거에 투표할 자격을 가졌다. … 압도적인 투표 등록 성과는 어떠한 강요에 의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것도 자타가 모두 다 공인하는 바”라고 발표했다(『동아일보』 1948.4.14). 그러나 한국여론조사협회의 여론조사 결과는 응답자 91%가 강제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 이런 주장을 무색케 했다(『조선일보』 1948.4.16).

선거가 다가오자 정치 지도자들의 반대 목소리도 커졌다. 김구는 “인민들은 경찰과 향보단에 의한 강압적 분위기 하에서 선거에 등록, 투표할 것을 강요당했다”고 말하고, “인민들이 자유로웠다면 단독선거에 반대했을 것”이라며 5·10선거의 강제성을 주장했다.²⁷⁾ 김규식도 미국 행정부가 부패했다고 비난하고, 유엔이 후원하는 5·10선거를 반대한다고 말했다(『Washington Post』 1948.5.5). 김규식은 “현재 미군정에는 너무나 많은 부패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일제로부터 40여년 동안 점령을 받은 조선인들은

26)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809, April 15, 1948.

27) USAMGIK,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Activities, No. 32, May 1948, p. 143.

부정직한 일본인들과 협력하는 것을 배웠다. 이제 미국인들은 이들 조선인들의 경험을 이용해 부패에 일조하고 있다. 몇몇 미국인들은 집에 재산을 가져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UNTCOK 대표로 1948년 4월 9-10일 제주도를 방문한 마네의 보고서는 주민들에게 강제로 선거인 등록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많은 증거들을 입수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들은 미군정에 우호적이었다.

하지는 ‘압도적 투표 등록 성과’에 고무됐지만, 제주 지역의 등록률은 전국 시·도 가운데 최저치인 64.9%에 지나지 않았다.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자 주한미군사령부는 5월 8일 5·10선거에 대비해 남한 주둔 미군에 “미군은 남한의 선거에 대한 공산주의의 공격을 저지하도록 원조하기 위해 경계령을 내리고 경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내용의 경계령을 내렸다(『서울신문』 1948.5.9). 이어 선거 당일에는 미 태평양함대 소속 순양함과 구축함 등 2척이 남한 해역에 들어왔다(『동아일보』 1948.4.30). 미군정 경찰도 본격 선거체제에 들어가 4월 30일 경무부장 조병옥이 총선거에 대비한 남한의 치안확보에 관한 담화를 발표하고, 선거 당일에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향보단과 경찰력을 총동원해 투표소를 왕래하는 도로의 주요 지점과 같이 기타 주요 장소를 경계하도록 지시했다(『동아일보』 1948.5.1). 이처럼 무장경찰, 향보단원, 미군의 경비대세 등 삼엄한 경계 하에 첫 선거가 남한에서 실시됐다. 이런 선거 모습에 대해 한 외신기자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조선일보』 1948.5.11).²⁸⁾

조선은 회랍사태의 완전한 재연이다. 양국에서의 공산당 전술은 동일한 것이며 회랍에서 발생한 전투는 조선에서도 발생할지 모른다. 양국은 지리적으로도 근사하다. 양국은 다 산악이 많은 반도이다. … 미국 당국은 경찰이 특히 소란한 제주도에서 수인(囚人)을 구타함을 억제하려고 노력하였다. 경찰은 관인(寬仁)을 약속하고 있으나 그들이 복종함은 곤란시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경찰에 대한 증오감을 선동시키기가 용이하다. 이는 회랍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회랍에는 거야(拒野)하고 난폭한 경찰부대가 있었다. … 조선 미국점령군사령관 하지 중장은 회랍과 조선간의 사태 상사(相似)에 놀래고 있는데 아직 좌익과 점령부대간 사격전은 없다.

28) UP 서울특파원 제임스 로퍼의 5·10 선거 논평 기사.

그러나 하지의 정치고문관 제이콥스(Joseph E. Jacobs)는 5월 12일 국무성에 보고한 선거 당일의 모습에 대해 자신의 참모의 시찰을 인용해 “훌륭한 투표시설과 주민들의 반응, 자유롭고 평화스런 선거분위기가 있었다”며 “선거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부영사 마크(David E. Mark)도 선거비망록을 통해 “과거 미국의 정책이 한국사회에서 우익 정치집단의 장악을 불러오고, 이승만에 대한 반대세력으로서 공산주의자 뿐 아니라 반이승만 진영의 기를 꺾는데 많은 일을 했다”고 말했다.²⁹⁾

한편, 제주도는 5·10선거 기간 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요가 발생한 지역 가운데 한곳이었다. 5월 7일부터 5월 11일 오후 2시까지의 선거 관련 제주도의 소요 현황을 보면, △경찰 사망 1명 부상 21명 △우익인사 사망 14명 부상 5명 △공산주의자 사망 21명, 주택 방화 22곳이었고, 경북지방은 △경찰 사망 1명 부상 2명, 선거위원 사망 1명 △우익인사 사망 8명 부상 18명 △공산주의자 사망 20명 부상 4명 체포 177명 △지서 습격 5명 △기관차 파괴 17개 등이다.³⁰⁾

5·10선거가 다가오자 주민들은 ‘강제적’으로, 혹은 ‘자발적’으로 중산간 지역으로 피신했다가 선거가 끝난 뒤 돌아오기도 했다. 선거반대세력의 물리적인 반대활동으로 선거위원과 유권자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북제주군(현재의 제주시 지역)에서는 일부 투표소가 완전히 파괴되기도 하였다.³¹⁾ 미국은 선거에 불만을 가진 우익인사들이 5·10선거를 저지하려는 공산주의자들과 합류하는 바람에 남한내 사회적 긴장과 반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선거 자체가 치러질 지에 의문을 가졌다. 심몬스(Walter Simmons) 기사는 “소련이 장악하는 북한 라디오 방송은 매일 유권자들에게 ‘희생을 치르더라도’ (선거에)참가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은 지방과 제주도에서 수백여명의 살인행위에 뒤이어 나타난 것이다. 제주도에서 올라온 최근의 보고는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학살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고

29) Despatch No. 124, Enclosure, Memorandum on Elections(Vice Consul David E. Mark), 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Subj: Observation of Elections in South Korea, May 12, 1948.

30)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831, 11 May 1948.

31) USAMGIK,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Activities, No. 32, May 1948, p. 43.

있다’는 것이다”고 전했다(『Chicago Tribune』 1948.5.7).

미군정은 미국인 관리들에게 투표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라는 명령³²⁾과는 달리 제주도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군이 직접 선거에 개입했다. 미군들은 제주도에서 선거현장 감시는 물론 선거 실시를 위한 투표함 수송 및 점검 등에도 참여했는가 하면 직접 투표장에서 투표 현장을 감시하기도 했다.³³⁾ 신경이 날카로워진 미군은 조천면 대흘, 와흘, 와산 등 중산간 마을로 투표함을 운반하지 못해 고민을 하던 면장을 위협하기도 했다.

면사무소를 나온 지프는 동쪽으로 향했는데 꼭 김녕 모래밭으로 데려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겁도 나고 해서 통역관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지어 이러는 거냐, ‘만약에 내가 죽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테니 통역을 똑바로 하라’고 항의했습니다. 통역관의 말이 먹혔는지 함덕 서우봉까지 갔던 지프가 다시 방향을 돌리더니 면사무소까지 되돌아와 나를 내려놓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제민일보사 1994, 211).³⁴⁾

미군정 장교들은 3개반으로 나눠 제주지역에 대한 선거감시활동을 벌이고, 종합보고서와 함께 각 반이 작성한 자세한 선거감시보고서를 군정청에 제출했다. 서울에서 파견된 군정장교인 스피어(T. J. Speer) 대위, 테일러(Herbert W. Taylor) 대위, 번하이젤(Charles K. Bernheisel) 중위 등 3명은 5월 5일 제주에 들어와 제59군정중대 장교들과 합류해 선거감시활동을 벌인 뒤 5월 15일 서울로 돌아갔다.

32) Inclosure No. 1, Despatch No. 85, Telegram, Subj: Orders Issued by USAFIK and USAMGIK regarding South Korean elections, Hodge, CG. USAFIK to CG. 6th Division, 7th Division, Military Government, Korea Base Command, Joseph E. 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9 April 1948.

33) Inclosure No. 46, Report of General Observation of MG Election Observation Teams, Cheju Island, "Report of the Military Governor of holding of elections in South Korea on 10 May 1948, leading to the establishment of a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Government under the observation of the United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UNTCOK)"(이하 MG Report), W. F. Dean to Hodge, Subj: Report of the Holding of Elections in South Korea, 10 July 1948

34) 김민규(당시 조천면장)의 증언.

제주도 민정장관 맨스필드(John S. Mansfield) 중령은 이들이 도착한 다음 날인 5월 6일 감시활동을 할 지역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번하이젤 중위는 구좌면에 배치됐고, 제59군정중대 켈리(David C. Kelly Jr.) 대위는 조천면에 배치됐다. 5월 7일 이들 장교 2명은 자신들이 담당할 지역에서 하루종일 투표소를 방문하고 각 면사무소에 투표용지를 전달했으나 2개 면에 대한 감시결과는 상반됐다. 켈리 대위는 조천면에 대해 “파괴분자들에 의해 완전히 장악된 것으로 보이며, 규정된 선거절차에 대해 희망이 없는 혼란상태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구좌면에 대해서는 “선거전 단계가 ‘국회의원 선거 시행규칙’에 지시된 제반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훌륭하게 선거준비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북제주군 애월면과 한림면, 추자면을 맡은 스콧 대위는 각종 도로 장애물과 무장대가 뿌린 유인물을 발견했고, 주민들이 산으로 피신한 사실도 확인했다. 남제주군 안덕면에서는 미군이 직접 중산간 마을에 투표함을 싣고 들어가 선거를 치르기도 했다. 당시 안덕면 부면장 김봉석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선거일이 다가오자 부대에서 나왔다는 미군 여자 1명이 직접 스리쿼터를 몰고와 광평마을까지 투표함을 수송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선거 전에도 무장한 미군들이 면사무소에 자주 들렀습니다. … 그 여군은 우리말을 잘 했습니다. 내가 위험하다고 했더니 걱정할 것 없으면서 적극적으로 나서더군요. 리사무소에 투표함을 설치하고 그 미군 여자와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5·10선거가 치러졌습니다(제민일보사 1994, 211-212).

자발적이거나 강요에 의해 주민들이 중산간 지대로 오르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무더기 대리 투표가 이뤄졌는가 하면, 투표함 바꿔치기 등 부정행위도 잇따랐다.³⁵⁾ 미군정 요원들의 선거감시활동 보고서는 선거가 치러진 투표소와 주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주민들이 선거를 반대하거나 무장대에 의한 선거반대 투쟁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다.

미군정이 투표함 직접 호송, 투표소 직접 감시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 제주도 5·10선거에서 남제주군 선거구는 투표율이 86.6%였으나, 북제

35) 강용규(당시 중문면사무소 근무)씨 구술채록(2007.4.8).

주군 갑 선거구는 43%, 북제주군 을 선거구는 43%의 투표율을 보여 과반수에 미달했다. 국회선거위원회는 선거법 제44조에 따라 5월 19일 딘 군정 장관에게 제주도 북제주군 갑과 을 선거구의 선거무효를 건의했다. 미군정은 제주도의 선거 실패가 남한의 전체 선거구도를 변화시키지 못할 것³⁶⁾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이들 선거구는 파괴분자들의 활동과 폭력행위 때문에 인민의 진정한 의사표현으로 볼 수 없다”며 선거무효를 선언했다.³⁷⁾ 이어 5월 26일에는 포고문을 발표하고 6월 23일에 재선거를 치를 것을 명령했다.³⁸⁾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5·10선거에서 전국 대부분의 도시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유혈사태가 빚어졌으나, 유독 제주도에서만 선거가 실패한 것이다. 미군정이 5·10선거의 성공을 강조하는 그 이면에서는 선거가 실패한 뒤 공산세력의 척결을 구실로, 혹독한 진압을 예고했다.

2. 미군정의 총공세

단선·단정에 반대하는 4·3이 발발한 제주도의 5·10선거는 선거기간 동안 폭력행위의 강도에 있어 다른 지방의 선거에 따른 소요와는 양상이 달랐다.³⁹⁾ 딘 군정장관은 하지 사령관에게 보낸 보고서를 통해 “공산주의자들이 제주도에서 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 것이 분명했다”고 밝힐 정도로 제주도 소요를 예의주시했다.⁴⁰⁾

그러나, UNTCOK의 중국 대표 류(Liu)는 “선거가 질서정연하게 치러진데 대해 매우 놀랐고, 충분히 만족한다. 투표지역에서 소요사태를 보지 못했으며, 선거는 질서정연하고, 조용하며, 정중한 태도로 치러졌다”고 평가했다(『New York Times』 1948.5.11).

36) Despatch No. 387, 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25 May 1948.

37) Inclosure No. 54A, Lettr, Maj Gen. W. F. Dean, Military Governor, USAMGIK, to Chairman National Election Committee, 24 May 1948, MG Report.

38) Despatch No. 389, Jab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May 26 1948 ;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845, 27 May 1948.

39)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138, 7 May 1948 ; No. 139, 14 May 1948.

40) MG Report, p. 43.

하지 중장과 UNTCOK가 5월 12일 남한의 5·10선거에 대해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평가(『경향신문』 1948.5.12 ; 5.30)한 가운데 미군은 제주도 소요에 대해 강력한 진압작전에 들어갔다. 미극동사령부는 하지 중장이 ‘민주주의 승리’라고 발표한 12일 구축함 크레이그(Craig)호를 제주도에 급파하고,⁴¹⁾ 상황이 악화되면 전투기 사용까지도 고려했다. 같은 날 미군정 스탠리(Stanley)중령이 제주도에 급파됐다.⁴²⁾ 5·10선거의 실패로 주한미군사령부와 미군정이 전면적인 대응을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비대는 5월 14일부터 21일까지 조천면 송당리와 교래리에서 동굴 수색과 진압작전을 벌여 200여명을 체포하고 7명을 사살했다.⁴³⁾ 박진경 연대장은 매일 한 사람이 한명의 폭도를 체포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강경 진압작전을 전개했다(『서울신문』 1948.8.15).⁴⁴⁾ 이와 동시에 미보병 제6사단 제20연대장 브라운(Rothwell H. Brown) 대령이 5월 중·하순께 제주도 사태의 진압을 위해 제주도 최고 지휘관으로 부임했다. 브라운 대령은 제주도의 모든 고문관들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제주도 주둔 경비대와 경찰 등 제주도의 모든 작전을 지휘·통솔하는 최고 지휘권을 맡았다.⁴⁵⁾ 하지 중장은 제주도 제59군정중대와 제주도 지구 CIC에도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브라운 대령을 지원하도록 명령했다.⁴⁶⁾ 브라운 대령은 6월 2일 “지난 5·10선거 때는 성적이 좋지 못하였는데 백성들을 보호함으로써 6월 23일 재선거시에는 진정돼 자유롭게 대표를 선출하도록 될 것”이라고 장담했으나(『현대일보』 1948.6.3) 원인을 치유하지 않은 무력진압은 사태의 해결을 어렵게 할 뿐이었다. 조선중앙일보 조덕송 특파원은 현지발 기사를 통해 제주도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조선중앙일보』 1948.6.10).

농림기임에도 들판에서 볼 수 없는 촌민을 만나러 일행은 부득이 마을로 들

41) GHQ, FEC,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General Staff, No. 2105, 13 May 1948.

42) Radiogram, Col. Terrill E. Price,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 to American Advisor, 9th Regiment, Korean Constabulary, 12 May 1948.

43) Hq, XXIV Corps, G-3 Operations Report No. 26, 22 May 1948.

44) 박진경 연대장을 암살한 손선호 하사의 진술.

45) Charles L. Wesolowsky(당시 제주도 주둔 고문관·미국 플로리다주 거주) 증언 (2001.10.22-23).

46) CG, USAFIK to 59th MG Group, Chejudo, Undated, RG 338, NARA, USA.

어갈 수 밖에는 없었다. 철갑 군대무장을 빌려 입은 일행의 모양을 무엇을 인정하였는지 길에 서있던 마을사람들은 피하는 듯 집안으로 들어간다. 순박하여야 할 그들의 표정이 왜 이다지도 공포와 회의의 빛에 말없이 어두우나. 이 마을 역시 한번 산으로 올라갔다 돌아온 사람들이다. 간신히 일행의 신분 목적을 알린 다음 더듬더듬 대답하는 그들의 말을 들었다. 다시 부락으로 돌아왔지만 옷을 벗고 밤잠을 잔 적이 없었다. 눈 앞에다 거두어드릴 곡식을 두고도 무서워서 밭에 갈 수 없고 산사람이 오면 또 언제 산으로 올라가게 하게 될는지! ... 국방 경비대나 경찰이 주둔하면 그들은 양민이 되고 산사람이 내려오면 또한 그들 자신도 산사람이 되는 것이다.

상공에는 미군 정찰기가 날고, 제1선에는 전투를 지휘하는 미군의 지프가 질주하고 있으며, 해양에는 근해를 경계하는 미군함의 검은 연기가 끊임 없이 작전을 벌였다(『조선중앙일보』 1948.6.6). 그러나, 미군정은 6·23재선거를 치를 상황을 만들지 못하자 6월 10일 행정명령 제22호를 공포하고 제주도의 재선거를 무기 연기했다. 결국 브라운 대령도 6월 23일로 연기된 재선거를 성공시키지 못했으며, ‘점령기간내 핵심적인 성과’라던 선거가 두 번씩이나 실패했다.

6·23 재선거가 무기한 연기되자 주한미군사령부와 미군정은 진압작전을 한층 강화해 경비대 1개 대대당 2중대 규모로 편성된 대대를 제주도의 동서남북에 주둔시켜 모든 대대가 한라산 고지대를 향해 내륙으로 전개하는 작전을 벌였다. 이 작전으로 3천여명이 체포됐으며, 575명이 수용소에서 경비대와 미군으로 구성된 4개 심문팀의 심사를 받았다.⁴⁷⁾ 브라운 대령의 중산간 지역에 대한 고립 및 검거작전으로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검거된 도민만 5천여 명에 이르렀다.⁴⁸⁾ 군정장관 대리 쿨터(John B. Coulter) 소장이 6월 15일 소요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제주도를 방문한 사흘 뒤 제9연대장 박진경 대령의 암살사건이 일어났다.⁴⁹⁾ ‘한국의 부대장 및 야전지

47) Inclosure, Memorandum for CG. Subj: Visit on Cheju Do, Coulter to Hodge, 15 June, 1948, Despatch No. 199, Subj: Disturbances on Cheju Island, Joseph E. Jacobs, U.S. Political Advisor to the Secretary of State, July 2, 1948.

48) Subj: Report of Activities on Chejudo Island from 22 May 1948 to 30 June 1948, Rothwell H. Brown, Col. to CG. USAMGIK, 1 July 1948.

49) 박진경은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으로 제주도에 근무했다. 그는 제주도를 잘 알고 있어 연대장으로 부임했다(『New York Times』 1948.6.19).

휘관 가운데 가장 우수한 인물의 한명으로 평가⁵⁰⁾받던 박진경 암살사건은 미군정의 비상한 관심을 모아 던 군정장관뿐 아니라 로버츠 준장과 그의 참모들이 대거 제주도에 내려왔다.⁵¹⁾ 이들은 전날 열린 진급식에 참석한 뒤 상경했다가 암살사건 소식을 듣자마자 다시 내려온 것이다. 이어 경비대원들에 대한 무장해제와 함께 한국군내 최초의 숙군작업이 실시됐다(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1967, 441). 수사 결과 제9연대 제3중대장 문상길 중위 등 8명이 체포되고 이 가운데 4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제주도 소요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제주도민회(제우회)는 물론 이인 검찰총장까지 나서 6월 15일 “관공리의 부패가 원인이 되었다”는 견해를 발표하자 경무부장 조병옥은 6월 23일 다음과 같은 담화문을 발표했다(『현대일보』 1948.6.24).

폭동이 발발하고 치안이 교란 파괴된 원인을 행정 사법기관의 인사행정의 편파 혹은 처사의 원만성 결여 등에 대한 불평불만 및 경찰관의 비민주주의적 과오 등에 돌려 추상적이고 값싼 동포애를 고조하고 인정론을 부르짖는 바 있으나 여사한 제론은 사고와 판단의 착오 및 피상적 관찰에 기인한 분말전도의 유견(謬見)이라고 사료하는 바이다. … 그 근본 원인은 조선의 소련 연방화 내지 위성국화를 기도하는 공산당의 남조선 파괴공작이 강행될 그 일단으로 총선거 방해 공작에 불과한 것이다. 그 유래가 요원하고 규모에 있어 방대하고 치밀하니 만큼 북조선은 그 세력 하에 두고 남조선을 규시(窺視)하는 소련이 그 야심과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여사한 폭동은 제주도에 국한되지 않고 남조선 일대에 전파 만연될 것으로 당분간 남조선에는 정상적 치안의 복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다.

제주도 상황에 대해 “공산주의자들이 제주도에서 강력한 (선거방해)시도를 했으며, 분명히 다른 지방과 북한으로부터 많은 수의 훈련된 선동가와 다량의 무기, 탄약을 들여왔다”며 “이런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는 경무부장 조병옥의 시각과,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한 북쪽에서 나오는) 라디오 방송에서는 제주도를 ‘동양의 그리스’로 취급할 것”이라고 분석한 미군정

50)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863, 18 June 1948.

51) Wesolowsky 증언.

의 시각은 제주도 소요사태의 원인 치유와는 거리가 멀었다.⁵²⁾

IV. 초토화작전과 재선거를 위한 정지작업

1. 초토화작전: 여순사건의 여파

제주4·3붕기 이후 제주도민들에 대한 학살사건은 1948년 10월 하순부터 1949년 1월 사이에 집중됐다. 초토화작전⁵³⁾은 정부 수립후 미군 철수가 시작되고 여순사건이 발생한 직후 시작됐다. 여순사건의 진압으로 수개월 동안 소요가 계속되고 있는 제주도의 소요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미군 수뇌부와 정부는 자연스럽게 제주도 무장대 세력의 제거에 관심을 쏟게 되었다. 미국은 미군이 철수하면 동해안을 따라 게릴라작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견하고, 이를 이끄는 그룹은 제주도에서 작전을 벌이고 있는 그룹일 것이라고 보았다.⁵⁴⁾ 이에 따라 미군은 우선 철수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제주도 소요를 진압해야 미군의 명예로운 철수와 신생 대한민국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했다고 할 수 있다.

국방경비대의 작전지휘권은 ‘한미군사행정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경비대의 모든 작전명령은 이를 발표하기에 앞서 해당 미고문관을 거치도록 돼 있었다.⁵⁵⁾ 통위부 고문관 로버츠 준장이 이를 국무총리 이범석에게 상기시킬 정도였다. 제주도 주둔 고문관들도 미군

52) Subj: Report of U.S. Liaison Officer with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UNTCOK), John Weckerling to CG, USAFIK, 7 June 1948.

53) 초토화작전은 일본군이 만주에서 의병운동을 진압할 때부터 사용한 것으로, 의병의 근거지가 되는 산간 소마을을 불태워 평지의 일본군 지배 하에 있는 마을로 집단 이주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1930년대의 만주에 있어서의 집단마을과 베트남전쟁에서 미군이 취한 전략촌의 원형이 되는 전술이었다(藤原 彰(엄수현 역) 1994, 138).

54) Hq, USAFIK, JOINT WEEKA No. 34, 21 Aug 1948.

55) “국방경비대의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으며, 경비대의 작전에 관한 모든 명령은 발표되기 전에 해당 미고문관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통위부 고문관 로버츠 준장이 국무총리 이범석에게 보내는 서한, 1948.9.29. (제주4·3위원회h 2002, 90-91).

의 철수 때까지 제주도에 남아서 현지 작전에 대한 조언과 한국군에 대한 훈련을 실시했으며, 주한미군 사령부 정보참모부는 경비대에 게릴라 상황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기도 했다.

제9연대장 송요찬 소령이 “10월 20일 이후 5km 이내의 내륙지역을 ‘적성지역’으로 간주하겠다”는 포고문 발표(10월 17일)에 이어 초토화작전을 앞두고 제주도 주둔 경비대의 증강을 위해 증파될 예정이던 제14연대 제1대대가 10월 19일 제주도 출병을 거부한 여순사건이 일어났다.⁵⁶⁾ 제14연대 병사들은 21일에 여수와 순천을 비롯한 주변 지역을 장악했으나 27일까지 진압군에 의해 진압됐다. 미군 고문관들은 작전계획 수립에 참여⁵⁷⁾했을 뿐 아니라 직접 진압작전에도 개입했다.⁵⁸⁾ 여순사건은 군사고문단이 채택한 시스템에 대한 ‘시험무대’가 되었고, 전투에서도 한국군 파트너에게 적절히 자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무대’라고 할 정도로 남한의 소요 진압에 미국은 깊숙이 개입했다.

여순사건이 일어나자 주한미군사령부 작전참모부 소속 고문관 웨스트(West)는 10월 22일 제주도 주둔 제9연대 고문관 버제스(F. V. Burgess) 대위에게 “정찰을 시작하고 본토의 반란군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색출할 것”을 지시하고,⁵⁹⁾ 정보주임에게 전화로 메시지를 남겨 “여순사건과 관련한 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제주도 상륙을 감시하고 체포”토록 지시했다.⁶⁰⁾ 여순사건은 주한미군의 철수와 맞물리면서 미국으로서는 부담을 안게 됐다.

56) 1948년 8월 대정면 모슬포에서 대대 고문관으로 근무했던 켈소(Minor L. Kelso) 예비역 중령(당시 중위)은 여순사건을 최초로 목격한 미군 고문관이다. 그는 “순천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지프를 몰고 가기 위해 도로에 죽어있는 민간인들을 끌어 내기도 했다”면서 “처형에는 여성과 어린이들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마이너 켈소가 필자에게 보내온 서한, 2001.9.10).

57) Despatch No. 81, Subj: Review of and observations on the Yosu Rebellion, John J. Muccio, American Mission in Korea to the Secretary of State, Nov 4, 1948.

58) 이에 대해 군사고문단장 로버츠는 육군성 기획작전국장 볼테(Charles L. Bolte) 소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송호성 준장은 전술을 모르며 여수에서 실패했다. 우리가 비록 그에게 모든 찬사를 보내지만 풀러(Fuller)대령이 실제 중요한 일을 했다”고 언급했다(Roberts to Major Gen. Charles L. Bolte, Director of Plans and Operations, Department of the Army, 19 Aug, 1949).

59) Radio 32, Message, West, Advisor, G-3 to Capt. Burgess, Chejudo, 1250 22 Oct 1948.

60) Radio 36, Message to Chejudo, 1400 22 Oct 1948.

미국은 여순사건 진압과정에서 보여준 경비대의 문제점에 대해 예정된 12월의 주한미군 철수에 앞서 개선이 이뤄질지에 관심을 가졌다. 이들은 미군이 철수한 뒤 남한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한국군의 능력에 대해 우려했던 것이다.⁶¹⁾ 이에 따라 여순사건이 진압되자 자연히 제주도 소요사태의 진압문제가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게 되었고, 제주도 토벌작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었다.

송 연대장의 포고문 발표와 여순사건이 일어나자 제주도의 무장대는 10월 24일 선전포고와 함께 호소문을 발표하고(김봉현·김민주 1963, 166),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송 연대장이 이끄는 제9연대의 초토화작전은 사실상 10월 하순에 시작됐다.

제9연대는 10월 29일 예월면 고성리 부근에서 제2차 작전을 벌여 135명을 사살하는 등 무차별적인 초토화작전이 시작됐다.⁶²⁾ 주한미대사 무초(John J. Muccio)는 11월 3일 국무성에 보낸 전문을 통해 “제주도 공산주의자들을 섬멸하는데 있어 정부의 눈에 보이는 무능력에 대한 긴장감이 여전하다”며 한국군의 ‘능력’을 우려했다.⁶³⁾ 이는 남한 정부로 하여금 제주도 사태의 진압을 위해 더욱 강경한 진압작전을 전개하도록 촉구하는 것이었다.

로버츠 준장은 송요찬 연대장이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CIA의 활동도 우수하다고 평가했으며,⁶⁴⁾ 송 연대장은 하지 중장에게 보낸 추천서를 통해 “10월 10일부터 임무를 수행한 정찰 조종사 에릭슨(Fred M. Ericson) 중위가 반란군의 집결지, 사령부, 정부군과 반군간의 전투상황을 제9연대에 넘겨줘 진압할 수 있게 했다”고 감사를 표시했다.⁶⁵⁾ 주한미군사령부의 정보참모부가 작성한 G-2 보고서만 보더라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제주도 상황은 경비대원 5명과 경찰관 1명의 사망을 제외한 희생자는

61) Despatch No. 81, Subj: Review of and observations on the Yosu Rebellion, John J. Muccio, American Mission in Korea to the Secretary of State, Nov 4, 1948.

62) 971th CIC to G-2, Corps, Flash No. 289, 022210 Nov 1948.

63) Despatch No. 180, Muccio to Secretary of State, Nov 3, 1949.

64)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이 제24군단 사령관에게, 군사고문단 주간활동, 1948.11.8 ; 11.15(제주4·3위원회h 2002, 72-73).

65) 송요찬 연대장이 제24군단 사령관에게, 군사고문단장 경유, 제목: 에릭슨(Fred M. Ericson) 중위에 대한 추천, 1948.12.6(제주4·3위원회h 2002, 206)

358명으로 하루 평균 17명이 사살됐다. 11월 13일에만 156명이 사살됐다.⁶⁶⁾ 이승만은 제9연대장에게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at the earliest possible time) 봉기를 진압할 것을 명령했다(『Washington Post』 1948.11.19). 제9연대의 전투일지(Daily Report)를 토대로 본격적인 초토화작전이 벌어진 시기인 11월 하순부터 12월 하순 사이 제9연대의 활동상황을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⁶⁷⁾

<표 1> 제9연대 전투일지

일 자	부 대	주요 활동		
		장 소	사상자수	노획품
11.21	2대대	조천리	사살 66, 체포 2	99식총1, 99식탄약50, 카빈탄약7, 등사기1
	3대대	적군으로부터 대정 부근 적 보급창고 위치 정보입수		
11.22	3대대	보급창고	사살 88, 체포 4	일본도3, 군복45, 담요19, 대형천막1, 소형천막1, 등사기1, 수류탄1, 다이나마이트2, 99식탄약250
11.23	2대대	선흘동굴	사살 15, 체포 1	일본도1, 공산주의자 모자3, 담요8, 비밀명령서
11.24	2대대 F중대	노형리	사살 79	99식총4, 38식총2
	2대대	교래리	사살 5	99식탄약2, 카빈탄약 5
		조천리	사살 3, 체포 16	칼1, 담요8, 쌀포대2, 비밀명령서
3대대	서귀포	사살 6		
11.25	2대대	성산포	사살 70	99식총2, 99식탄약37, 다이나마이트12, 외투50
		함덕리	사살 50, 체포 11	
11.26	2대대	보평리	사살 4	
		교래리	사살 59, 체포 129	미제45구경권총1, 창77, 일제철모2
11.27	2대대	선흘리	사살 43, 체포 51	일제총검3, 창12, 쌍안경1, 쌀포대15
		어승생	사살 12	쌀포대200, 솥상자20
		함덕리	사살 17, 체포 110	수류탄6, 뇌관9m

66)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989, 16 Nov 1948.

67) 이 문서는 '9th Regiment Daily Report'라는 이름으로 매일의 전과를 기록한 것이다. 국군 쪽에는 당시 전투일지가 없으나, 이 일일보고서 형식의 전투일지는 초토화작전 시기 제9연대 고문관이었던 피쉬그룬드(Harold S. Fischgrund) 예비역 대령(당시 대위)이 원본을 보관해오다가 오하이오주립대 밀레트(Allan R. Millet) 교수에게 넘겨준 것을 필자가 입수해 표로 재구성한 것이다.

	3대대	토평리	사살 3, 체포 5	침낭9, 쌀포대6, 의류
11.28	2대대	수장악	사살 64	99식총2, M1탄약180, 44식탄약25, 일제철모8, 미제철모1, 쌀포대80, 천막7, 휘발유2드럼, 의약품
11.29	1대대	월평리	사살 5	쌀포대11
	2대대	상명리	사살 9, 체포 3	창8, 쌀, 의약품, 기타 물품 트럭 1대분
11.30	1대대	월평리	사살 6	칼1, 천막1, 우의1
	2대대	선흘리	사살 6	창5, 배낭4, 미제군복1, 등사기1, 시계1, 쌀포대4, 선전유인물
	2대대 F중대	애월리	사살 5, 체포 4	칼2, 창4, 총검1, 담요17, 의복배낭2, 쌀포대40, 나무막사1, 천막3
12.1	보고없음			
12.2	2대대	침악	사망(아군)1, 부상(아군) 1, 사살 28	M1총2, 카빈1, 99식총4, 44식총1, 총검2, M1탄약56, 99식탄약18, 38구경탄약30, 카빈탄약11, 수류탄4, M1탄약노리쇠4, 일제철모10, 털모자1, 쌀포대2
12.3	1대대	보고없음		
	2대대	교래리	사살 15	담요 15
	3대대	서귀포	사살 48	쌀포대5, 고구마포대20, 일제철모6, 마차1
12.4	1대대	오등리	사살 5	일제셔츠4, 코트3, 배낭3, 신발2, 담요9, 총검1, 털모자1, 우의3
	2대대	보고없음		
	3대대	모슬포	사살 5, 체포 1	쌍안경1, 천막1, 쌀포대40, 덮개13, 의복배낭6,타이어 2
12.5	1대대	보고없음		
	2대대	침악	사살 18, 체포 7	담요4, 선전유인물
	3대대	모슬포 산간	사살 37, 체포 5	철모1, 일본도1, 기름1드럼, 기타 물품 트럭 2대분
12.6	1대대	월평리	사살 5, 체포 1	일제총검1, 천막1
	2대대	교래리	사살 34, 체포 8	담요1
	3대대	서귀포	사살 51, 체포 33	덮개9, 창1, 일제털목도리23
12.12	1대대	보고없음		
	2대대	송당리 침악	사살 14, 체포 8 사살 31, 체포 8	쌍안경1
12.13	1대대	보고없음		
	2대대	보고없음		

	3대대		사살 105	99식총10, 칼1 : 창으로 무장한 민간인 3천명을 동원해 대정에서 신예리까지 한라산 향해 공격, 민간인 100명당 군 1개 분대 활용
12.14	1대대	금악	사살 8, 부상(아군) 1대대 장교 1	99식총3, 38식총1
	2대대	도송리	사살 6, 체포 8	
	3대대	한라산	사살 48	배낭, 담요 각1, 쌀포대1, 감자포대 20
12.15	9연대	대전 이동 준비 완료. 현재 전체 연대는 경찰, 민간인들과 작전중. 한라산을 완전 포위했으며, 오후 8시 종료예정. 결과 미보고		
	1대대	금악	사망(아군) 1, 부상(아군) 4, 사살 16	
	2대대	월평리	사살 13, 체포 3	철모3, 담요1, 우의2, 창1, 군복1, 쌀포대2
12.16	좌익 250여명이 함덕리 주둔 부대로 귀순. 좌익 500여명이 증문으로 귀순 제2여단 제1대대가 오후 4시55분 도착. 3대대와 현재 교대중			
12.17	3대대	두모리	사살 12	총검1, 칼6, 낫2, 담요5, 쌀, 의류
12.18	2대대	교래리	사살 130, 체포 50	99식총1, 99식탄약2, 창32, 칼40, 담요16, 덮개31, 쌀포대247, 취사용 그릇10, 사발 100, 좌익서적 : 경찰, 민간인과 합동작전
	3대대	의귀리		쌀포대20, 숯포대40
12.19	2대대	침악	사살 36, 체포 30	일본도2, 담요12, 취사용 그릇6
	9연대 7중대, 2연대 2중대	신엄리	7중대: 사망 9(7중대장 포함), 부상 1, 2중대: 사망 1, 부상 1	적과 소규모 교전. 7중대: M1총3, 박격포1, 경기관총1, 카빈1, 탄약370 분실, 3톤트럭 피해, 2중대: 적 사상자 미확인. G-2 부고문관 카바노(Cavanaugh) 중위가 상세한 정보 제공가능
12.20	2대대	고악	사살 12	우의1

이 ‘제9연대 전투일지’는 정확한 통계가 아닐 수 있지만, 어느정도 초토화작전 시기 대량학살을 볼 수 있는 귀중한 문서로 평가된다. 이 표는 1948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만 한달 동안의 제9연대 작전활동을 담고 있다. 이 표에 나오지 않은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의 작전활동을 제외한 이 기간 군의 사상자를 제외한 사살자수는 25일 동안에 1,292명으로 하루 평균 51.68명에 이른다. 이 기간 체포된 도민은 498명이

며, 군의 사망자는 12명, 부상은 8명이다. 제9연대가 노획한 무기를 보면, M1소총 2정을 제외하면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들이 사용했던 일제 99식 소총이 27정 밖에 되지 않았고, 38식 소총 3정, 44식 소총 1정, 창 141개, 총검 8개, 일본도 7개, 일반 칼 51개 등으로 비교대상이 되지 않았다. 실제로, 11월 22일 제9연대 제3대대가 대정 부근의 보급창고를 공격해 88명을 사살했으나 이들의 노획품은 일본도 3개, 수류탄 1개, 다이나마이트 2개, 옛 일본군 99식 탄약 250발이 전부였다. 11월 25일 2대대가 성산포 부근에서 70명을 사살했으나 노획품은 일본군 99식 소총 2정과 탄약 37발, 다이나마이트 12개가 전부였으며, 함덕리 부근에서는 50명을 사살했으나 노획품조차 없었다. 11월 27일에는 선흘리 부근에서 43명을 사살했으나 창 12개와 일본군 총검 3개가 전부였다. 12월 6일 제9연대 제3대대가 서귀포 북쪽에서 51명을 사살했지만 노획품은 창 1개뿐이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미군 보고서는 제9연대의 작전이 중산간 마을의 주민들이 게릴라들에게 도움과 편의를 제공한다는 전제 아래 민간인 대량학살계획(program of mass slaughter among civilians)을 채택했다고 밝혔다.⁶⁸⁾ 수많은 도민이 학살되는 가운데 1948년 12월 17일자 미군 보고서는 “최근 제9연대의 진압작전이 계속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는 수준 높은 작전을 전개하려는 열의와 제2연대 성공자들의 훌륭한 업적에 부응하려는 열의 때문”이라고 분석했다.⁶⁹⁾ 송요찬 연대장의 포고처럼 중산간 지역에 피신한 도민들은 무차별 학살됐다. 초토화작전 시기의 제주섬은 ‘죽음의 섬’이었고, ‘킬링필드’였다.

그러나, 이 제9연대의 전투일지가 당시 학살의 전체상을 모두 담았다고 볼 수는 없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작성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나온 희생자 신고내용을 월별로 보면 1948년 11월 2,205명, 12월 2,974명, 1949년 1월 2,240명으로 나왔다(2003, 371). 제주도 지구 CIC는 “폭도들의 활동이 감소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제9연대의 공세작전 때문”이라며 “공식 보고된 사상자수는 3,549명이지만 믿을만한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5,000여명이 넘을 것이 확실하다”고 분석했

68)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April 1 1949.

69)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15, 17 Dec, 1948.

다.70) 주한미사절단은 이런 희생자들에 대해 “이들이 모두 진짜 게릴라들인지 의심스럽다”고 논평했으나,71) 송 연대장이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함으로써 무장대의 제거를 명분으로 제주도민들에 대한 학살을 묵시적으로 방조했다.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은 12월 20일 제주도민에 대한 대량학살을 불러온 송요찬의 작전을 격찬하고, 이런 사실을 언론과 대통령을 통해 널리 알려야 한다고 추천하기도 했다. 이러한 미군 수뇌부의 제주도 사태에 대한 인식은 국군에 의한 대량학살을 합리화시켰을 뿐 아니라 더욱 조장하였다.

2. 5·10재선거: 대량학살이 남긴 상처

1949년 1월 소련 잠수함이 제주도 연안에 나타났다는 미국 언론들의 대대적인 보도는 미국을 자극했다. 「워싱턴포스트」는 1월 9일자에서 ‘소련 잠수함에서 제주 공격실패’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1월 8일 3척의 소련 잠수함들이 4일 전 남한 연안에 나타났으며, 제주읍을 공격하라고 게릴라들에게 신호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틀이 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2척의 잠수함이 오후에 삼양마을 연안에 나타났고, 1척은 밤에 한림리 연안에 나타났다. 제주도 경찰이 연안에서 소련기를 확실히 보았다고 보고했다. 삼양마을 연안의 잠수함들이 불빛으로 신호를 보냈으나 발포는 하지 않았으며, 산간 내륙에 포와 기관총들을 은닉한 1천여명으로 추정되는 게릴라들에게 보급품을 전달하려고 했으며 상륙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잠수함들은 연안으로부터의 경찰의 강력한 사격에도 불구하고 4시간 동안 삼양마을 연안에 머물렀다고 내무부 비상경비본부는 말했다. 한림리 연안의 잠수함은 다음달 오전까지 떠나지 않았다.

70) Despatch No. 11, Inclosure No. 1, Subj: Political Survey, 971 CIC Cheju, 21 Nov, 1948, Subj: Transmitting Report of Developments on Cheju Island, Drumright to the Secretary of State, Jan 7, 1948.

71) COMGEN USAFIK to CINCFE, Tokyo, Japan, 21 Nov, 1948.

같은 날 『뉴욕타임즈』도 이를 보도했다. 이처럼 미국의 언론들은 소련 잠수함의 출현설에 대해 마치 직접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자세하게 보도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⁷²⁾ 하지만 이러한 보도는 미국무성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제주도 사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을 것이다. 이승만은 1949년 1월 21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미국이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동정을 표시하지만 제주도, 전남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발근색원하여야 그들의 원조는 적극화할 것이며, 지방 토색 반도 및 절도 등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의 존엄을 표시할 것이 요청된다”고 지시했다.⁷³⁾ 미국의 원조를 얻기 위해서는 제주도와 전남사건 관계자들을 ‘가혹한 방법’으로 뿌리뽑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앞서 하지 증장의 전 정치고문이자 이승만의 개인 고문격인 굿펠로우(Preston M. Goodfellow) 대령은 1948년 말 이승만에게 “한국문제와 관련하여 국무장관 에치슨과의 대화를 통해 게릴라들이 속히 제거돼야 하며,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보고 있다”면서 “나약한 정책은 워싱턴의 지지를 상실하고, 위협에 잘 대처하는 것만이 많은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⁷⁴⁾ 한국군 총참모장 채병덕 준장은 1월 26일 유엔한국위원단(UNCOK) 1진의 1월 30일 입국을 앞두고 UNCOK의 활동과 국민정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폭도와 반란군을 완전히 소탕하도록 육군과 해군에 명령했다. ‘가혹한’ 탄압을 지시한 이승만은 1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도 사태는 미 해군이 기항하여 호결과를 냈다하며, 군 1개 대대, 경찰 1,000명을 증파하게 되었으니 조속히 완정(完征)하여 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1월 31일 제6여단 유격대대가 제2연대와 함께 작전에 참여하기 위해 제주도로 이동했고,⁷⁵⁾ 군 참모장은 제주도와 지리산의 소요로

72) “반군(rebel forces)이 본토와 북한으로부터 병참지원을 받고 있다는 소문들이 있으나 이들 보고를 입증할 증거는 없다. 한국 해군에 의한 지속적인 정찰활동과 경찰 비행, 해안마을에서의 경찰의 치밀한 감시는 외부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시키고 있다.”(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1 May 1949).

73) 제12회 국무회의의록, 1949.1.17.

74) Goodfellow Papers, Box 1, draft of letter to Rhee, no date but late 1948, Bruce Cumings, The Question of American Responsibility for the Suppression of Chejudo Uprising, Presented at the 50th Anniversary Conference of the April 3, 1948, Chejudo Rebellion, Tokyo, March 14, 1998, p. 11에서 재인용.

유엔의 불신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시함으로써 무차별적인 소탕작전을 벌였다.

이승만은 2월 2일 굿펠로우의 1948년 말 남한내 게릴라 제거를 촉구하는 서한에 따른 답신 형식으로 “제주도에 대규모 경찰과 군 응원대를 파견해 공산 테러리스트들을 조만간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⁷⁶⁾ 주한미군사령부 정보참모부와 작전참모부의 보고서를 토대로 1949년 1월 5일부터 5·10재선거가 끝난 5월 13일까지 ‘무장대’나 ‘폭도’로 분류된 사살자만 1,262명이 고, 포로로 붙잡힌 제주도민도 2,523명에 이른다. 1월 17일에는 이른바 ‘북촌리 학살사건’⁷⁷⁾이 일어났고, 2월 20일에는 제주읍 도두리에서 민보단에 의해 ‘반도’(insurgents)라고 규정된 76명이 집단학살됐는데, 이 가운데는 중학생 나이의 소년들과 여성들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현장을 목격한 미군사고문단은 이를 제지하거나 중단시키지 않았으며, ‘민보단에 의해 자행된 대량학살에 대한 최초의 보고서’라고 논평했다.⁷⁸⁾ 미군은 “폭도라 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반인륜적 잔인성과 적법절차의 부정은 한국 고위관리들의 우려를 강력히 불러일으켰으며, 그러한 폭력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개념과 모순된다”고 지적했으나,⁷⁹⁾ 남한 정부에 그러한 우려를 전하거나 제재조치가 취해졌다는 기록은 없다.

군은 소탕작전을 위해 1949년 3월 2일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했으며(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446), 이승만은 재차 3월 8일 국무회의에서 국방장관과 내무장관에게 제주도와 전남 등지를 철저히 소탕하라고 지시했다.⁸⁰⁾ 주한미사절단 드럼라이트(Everett F. Drumright)는 3월 10일 군

75) Hq. USAFIK, G-3 Operations Report No. 5, 5 Feb 1949.

76) Letr, Syngman Rhee, President to Col. Goodfellow, Feb 2, 1949.

77) 북촌리 학살사건은 1949년 1월 17일 제2연대 일부 병력이 무장대의 기습으로 2명의 군인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군인들이 북촌리 마을을 덮쳐 이날 하루동안 300여명의 주민들을 학살하고, 300여채의 주택을 방화한 사건이다. 당시 대대장 차량 운전원으로 차출돼 현장에서 참모회의를 목격한 김병석은 “한 장교가 ‘군인들 태반이 적을 사살한 경험이 없는 군인들이니 각 부대별로 주민들을 끌고가 처형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뒤 집단학살이 시작됐다”고 말했다(조성윤·지영임·허호준 2007, 237-241). 그러나 이 사건은 주한미군사령부 G-2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다.

78)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77, 3 March 1949.

79) 극동군사령부 정보요약 제2375호, 1949년 3월 11일(제주4·3위원회j 2002, 23).

80) 제26회 국무회의록(1949.3.8).

사고문단장 로버츠에게 제주도 상황과 관련해 서한을 보내 “제주도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다음날 로버츠는 드럼라이트에게 회신을 보내 “한국의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제주도의 게릴라와 군사작전 등에 대해 강력한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⁸¹⁾ 이는 제주도 사태 진압에 대한 미국의 개입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고문관에게 매우 협조적인 사령관 유재홍 대령은 하버러(Walter J. Haberer) 중령의 자문을 받아들이면서 작전을 수행했다.⁸²⁾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는 미고문관의 지도를 받으면서 제주도 소탕작전을 벌인 것이다. 드럼라이트는 제주도 상황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했으나, 무장대의 활동이 적극적이지 아니면 진압군의 진압정책이 무차별적이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⁸³⁾ 『뉴욕타임즈』는 3월 15일자 ‘한국에서 반란군 추적 개시돼’라는 존 스톤(Richard J. H. Johnston)의 기사를 통해 한국군의 제주도 토벌 상황을 전했다.

한국 육군은 남한을 테러하고 있는 공산주의 주도 게릴라 도당들에 대해 봄철 공세를 시작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13일 육군 지휘관들에게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명령에 따라 마을을 방화하고, 시골에서 식량을 약탈하는 반란군들을 체포하거나 소탕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방장관 겸 국무총리 이범석과 내무장관 신성모를 수천명의 반란군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기 위해 남해안에서 50마일 떨어진 황폐화된 제주도에 파견했다. 정부 소식통은 14일 반란행위로 제주도가 마비됐고, 25만여명 대부분을 내륙지방에서 해안마을로 강제이주시켰다고 말했다. 정부 대변인은 지난해 여름 이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죽은 제주도민 숫자가 1만5,000여명이라고 말했다. 1만여채의 가옥은 방화로 파괴됐다고 그는 덧붙였다. 콜롬반 수도회의 스위니(Austin Sweeney) 신부는 13일 서울에 도착한 서한을 통해 제주도 인구 대다수가 기아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하루에 감자 1개로 연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이상 제주도에 거주한 그는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으로 농민들이 내륙의

81) 주한미군사령관 로버츠 준장이 드럼라이트에게, 제목: 제주도 상황, 1949년 3월 11일 (제주4·3위원회j 2002, 64-66).

82)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1 April 1949.

83) Despatch No. 142, Subj: Political Summary for Feb, 1949, Everett F. Drumright, Counselor of Mission to the Secretary of State, March 14, 1949.

농경지를 포기하고 섬의 몇몇 큰 해안마을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섬의 반란군들은 본토의 공산주의자들이 운영하는 기지로부터 비밀리에 왕래하는 소형 선박으로부터 잘 보급받는 것으로 보인다. 공산주의 관영 북한 라디오방송은 주말에 “인민들의 저항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제주도의 반란행위 성공을 계속해서 자랑했다.

3월 16일에는 국무총리 이범석이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에서 소련제 기관총과 탄약을 반란군들로부터 노획했다고 밝히고, 소련이 훈련받은 게릴라 지도자들을 소련이 점령하고 있는 한국의 북부지역으로부터 제주도로 몰래 들여오고 있다고 말했다(『New York Times』 1949.3.17). 이러한 제주도 사태와 북한, 소련을 연계하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나 미국 언론의 보도는 과장된 것이었다. 이승만의 제주도 방문을 8일 앞둔 4월 1일 현재 군·경 토벌대의 숫자는 군 2,622명, 경찰 1,700명, 민보단 5만여명이었다.⁸⁴⁾ 인구 28만여명의 땅에 5분의 1에 가까운 인구가 토벌활동에 나선 것이다.

제주도 소탕작전이 절정을 향해 치닫는 가운데 무초는 4월 4일 이승만을 만나 “한국은 제주도와 전라남도에 만연한 게릴라 도당을 제거하고 보안군(진압군)을 훈련시킴으로써 남한에서의 입장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 진압을 독촉했다.⁸⁵⁾ 미국은 남한내 ‘공산주의 세력’을 제거함으로써 제주도의 5·10 재선거를 성공시키고, 남한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6월 30일의 예정된 주한미군의 철수가 끝난 뒤에도 남한에 공산주의 방벽을 세우겠다는 계획이었다.

4월 9일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제주도를 방문한 이승만은 ‘게릴라에 대한 정열적이고 성공적인 진압’을 한 유재홍 대령과 경찰, 민간기관을 격려했다. 무초는 같은 날 국무장관에게 “제주도가 남한에 혼란을 퍼뜨리고 테러를 가하기 위한 소비에트의 주요노력의 장소로 선택됐다는 것은 통제

84)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1 April 1949.

85) Despatch No. 200, Inclosure No. 1, Conversation Memorandum, April 4, 1949, Subj: Transmitting a Memorandum of Conversation on Military Aid to Korea and Withdrawal of United States Troops, American Mission in Korea to the State Department, April 5, 1949.

를 받은 라디오방송으로부터 나오는 선전의 본질을 보면 분명해진다. 이는 본토의 전남과 경남에서 지속적이고도 유사한 작전으로 지속됐다. 대한민국 후방지역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소요와 불안정을 제거하기 위한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소비에트 요원들이 큰 어려움 없이 제주도에 침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보고했다.⁸⁶⁾

소련이 남한 데리의 전초기지로서 제주도를 채택했고, 소비에트 요원들이 제주도에 들어오고 있다는 무초의 발언은 아시아에서 반공 보루를 세우려는 미국의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민간인들이 아무리 많이 희생되더라도 특별하지 않으면 안 될 대상으로 인식한 것이며, 제주도를 공산주의 방벽을 구축하기 위한 일종의 ‘시험무대’로 삼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승만은 무초에게 제주도 방문 결과와 관련하여 군의 작전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완전히 섬멸되었음을 확신시켰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로 규정돼 섬멸된 제주도민의 대다수는 아무 것도 모른 채 군·경과 무장대가 무서워 이리 저리 피신해야 했던 민간인들이었다. 이들의 대화 어디에도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에 대한 언급은 없고, 오로지 이데올로기만 존재했다.

주한미대사관은 5월 2일 “3월 시작된 전면적인 소탕작전이 4월 말 사실상 막을 내렸고, 대부분의 반란군과 동조자들이 죽거나 체포됐고, 사상을 전향했다”고 국무성에 보고했다.⁸⁷⁾ 주한미군사령부 G-2는 한국 쪽 정부자료를 인용해 1949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반도’ 사살 1,075명, 체포 3,509명, 투항 2,063명, 진압군 사망 32명, 부상 17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이처럼 ‘반도’들의 숫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진압군이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를 통상적으로 반도로 분류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논평했다.⁸⁸⁾ 민간인 학살이 자행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산주의 세력의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한 미국과 이승만 정권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다. 5월 5일 제주도지구전투

86) 특사 무초가 국무장관에게, 1949년 4월 9일(제주4·3위원회k 2002, 79).

87) Airgram-60, Everett F. Drumright, American Embassy to the Secretary of State, May 2, 1949.

88)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113, 9 May 1949.

사령부의 해체와 군경 철수는 특별이 종식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4월 9일 후보자 등록 및 유권자 등록을 마감한 제주도 북제주군 5·10재선거는 갑 선거구가 전체 유권자 3만8,230명 가운데 3만6,387명이 등록해 95%의 등록률을, 을 선거구는 유권자 2만6,649명 가운데 2만5847명이 등록해 96.5%의 등록률을 보였다(「경향신문」 1949.4.28). 5월 10일의 선거 결과 갑구는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소속의 홍순녕, 을구는 대한청년단 소속의 양병직이 당선됐다.⁸⁹⁾

제주도의 5·10 재선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국회 의석수 200석을 모두 채우고, 남한 내부의 소요를 종식시킴으로써 체제의 안정을 대내외에 선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 뿐 아니라 미국으로서도 중요한 것이었다. 제주도 5·10재선거의 성공으로 5·10단독선거가 실시된 지만 1년 만에 완전한 대한민국 국회가 구성될 수 있었으나 그 이전에는 공산주의자나 폭도로 몰린 수많은 제주도민들의 학살이 수반되었다.

유엔 한국대표 조병옥은 5월 16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은 극동의 민주주의 보루로서 투쟁하고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제주도 사건을 예로 들면서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는 미국의 원조를 요청했다(「연합신문」 1949.5.18). 정부는 제주도 사건의 진압을 ‘민주주의 보루’를 위한 노력으로 평가했다. 무초는 5월 26일 한국의 국방장관과 교통장관에게 한국군이 제주도와 지리산 작전에서 거둔 ‘성과’를 언급하며, 한국의 진압군은 이러한 행위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치켜세웠다.⁹⁰⁾ 재선거가 성공했으나 제주도의 무장대 세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승만은 5월 22일 맥아더에게 서한을 보내 “제주도 등지를 소탕하기 위해 무기가 필요하다”며 무기지원을 요청했다.⁹¹⁾ 이처럼 공산주의 척결을 명분으로 한 학살은 5·10 재선거가 끝난 뒤에도 계속됐다. 체포되거나 귀순한 제

89) 북제주군 갑구 개표 결과 홍순녕 9664표, 함상훈 8700표, 김인선 7840표, 김시학 3752표, 양귀진 2208표, 문대유 2048표(「동광신문」 1949.5.14) ; 북제주군 을구 개표 결과 양병직 5766표, 양제박 4764표 「국도신문」 1949.5.14) ; Despatch No. 346, Subj: Political Summary for May, 1949, American Embassy to the Secretary of State, June 13, 1949.

90) Despatch No. 607, Muccio to Department of State, 26 May, 1949.

91) Letr, Syngman Rhee to General MacArthur, May 22, 1949.

주도민들은 재판과정에서 형식적이거나 재판 절차도 없이 가혹한 선고를 받았으며, 술한 고문을 겪어야 했다(제주4·3연구소 2002). 6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민간인 1,652명과 군인 47명을 기소해 345명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238명에게는 무기징역, 311명에게는 15년형, 705명에게는 7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54명에게 무죄를, 46명은 석방했다.⁹²⁾ 10월 2일에는 이승만의 승인에 따라 제주도에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249명이 집단처형됐다.⁹³⁾ 10월 13일, 무초는 국무성에 “제주도 작전이 너무나 파괴적일 정도로 성공해 ‘반도’들이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섬’에서 어떠한 회복도 할 수 없음을 보고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보고했다.⁹⁴⁾ 제주도에서의 작전은 미대사관의 관심과 대책 제시, 군·경의 토벌작전으로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까지 계속됐다. 유명한 컬럼니스트 설리번(Walter Sullivan)은 남한내 게릴라 작전과 관련해 “남한의 많은 지역이 전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전대미문의 테러 공포로 어두워졌다. 경찰, 농민, 게릴라들의 생명이 똑같이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경찰은 게릴라들의 습격으로 잔인하게 죽어가고 있다. 정부군에 체포된 무장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을로 끌려가 재판없이 총살되고, 반면교사(object lesson)로 삼도록 나무에 묶인다. 농민이 어느 한쪽과 협력하면, 그는 그 반대쪽의 손으로 폭력적 죽음의 위협에 직면한다. 협력하지 않으면, 그는 혐의자로 간주되고 위협에 처하게 된다”고 보도했다(『New York Times』 1950.3.6). 제주도경찰국이 한라산 금죽령을 해제한 것은 1954년 9월 21일로, 4·3봉기에서 한라산 금죽령이 해제될 때까지 2만-3만여명의 제주도민들이 희생되었다.

V. 맺음말

이 글을 통해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5·10선거를 중심으로 4·3의

92) Joint Weeka No. 9, 12 Aug 1949.

93) Joint Weeka No. 17, 7 Oct 1949.

94)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Oct 13, 1949, FRUS VII, 1949, pp.1086-1097.

진압과정에서 자행된 제주도민 학살과 관련해 미군정, 미군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역할을 파악하고자 시도했다. 또, 미국이 남한 단정 수립을 통해 아시아에서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고 소련으로부터 사주 및 지시를 받았다는 제주도의 ‘반란’을 진압하고자 했던 사실을 입증하려 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5·10선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기반이며, 5·10선거 반대를 명분으로 한 제주도의 4·3봉기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중반까지도 금기시됐다.

미국의 남한 점령 기간의 핵심적 성과이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5·10선거의 이면에는 제주도민들에 대한 군·경의 대량학살이 있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군과 미군정은 3·1사건에 대한 대책의 미숙 내지 정책적 오판을 했다. 미군정은 사태의 진상조사보다는 남한 총파업의 시급성으로 간주하며, 제주도를 좌익거점으로 보았으며, 이는 4·3봉기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어 주한미군사령부는 점령기간중 ‘핵심적인 성과’라는 5·10선거의 성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의 5·10선거가 실패하자 미군 대령을 최고 사령관으로 전면적인 진압작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 언론의 보도태도는 사건의 본질보다는 단편적인 사건보도와 제주도 사태를 소련 내지는 북한과 연계시킴으로써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제9연대 전투일지에 나타난 25일 동안에 하루 평균 51.68명의 사살되고 498명이 체포된 사실을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한 미군 고문관의 보고서를 주한미군사령부가 몰랐을 리 없을 것이다. 초토화작전 시기는 물론 4·3 봉기 이후 사건이 최종적으로 끝나는 시점까지 미국은 제주도 사태의 진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제주도민들의 대량학살에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초토화작전과 관련해 미국의 개입과 역할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부분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사태의 본질을 추론했지만, 미국무성이 제주도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과 미국 언론의 제주도 사태 보도가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발굴과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 국무회의록. 1949. 제6회-제26회.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한국전쟁사1-해방과 건군』. 서울: 동위원회.
- 김봉현·김민주. 1963.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자료집』. 大阪: 文友社.
- 오재완. 1991. 『미국의 대한정책과 미군정의 국내 정치적 역할: 1945-1948』. 고려대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 유엔조선위원단(임명삼 옮김). 1984. 『UN조선위원단 보고서』. 서울: 돌베개.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2003.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서울: 동위원회.
- _____. 2002. 『제주4·3사건자료집』 h. 서울: 동위원회.
- _____. 2002. 『제주4·3사건자료집』 j. 서울: 동위원회.
- _____. 2002. 『제주4·3사건자료집』 k. 서울: 동위원회.
- 제민일보사. 1994. 『4·3은 말한다』 2. 서울: 전예원.
- 제주4·3연구소. 2002. 『무덤에서 살아나온 4·3수형자들』. 서울: 역사비평.
- 조성윤·지영임·허호준. 2007. 『빼앗긴 시대 빼앗긴 시절-제주도 민중들의 이야기』. 서울: 선인.
- Matray(구대열 역). 1989. 『한반도의 분단과 미국-미국의 대한정책, 1941-1950』. 서울: 을유문화사.
- Merrill(신성환 역). 1988. 『침략인가 해방전쟁인가: 한국전쟁의 국내적 배경 1948-1950』. 서울: 과학과 사상.
- John R. Merrill. 1991. "The American Occupation of Korea." 『한국현대사와 미군정』.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 藤原 彰(엄수현 역). 1994. 『일본군사사』. 서울: 시사일본어사.

9th Regiment Daily Report.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Hq. USAFIK, G-2 Weekly Summary.

Hq. USAFIK, G-3 Periodic Report.

Hq. USAFIK, JOINT WEEKA(정용욱 편, 영주문화사 영인, 1997).

United States, State Department. Records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1945-1949(미국무성 한국관계문서 전23권 이름출판사 영인, 1995).

United States, State Department, FRUS, 1947, VI.

구술채록

강용규(당시 중문면사무소 근무). 2007.4.8.

김민주(당시 조천중학원생). 2007.8.1.

Charles L. Wesolowsky (당시 제9연대 고문관). 2001.10.21-22.

신 문

조선중앙일보, 제주신보, 독립신보, 서울신문, 우리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현대일보, 경향신문,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Los Angeles Times, Chicago Tribune.

서 한

Minor L. Kelso(제주4·3당시 미군 고문관)가 필자에게 보내온 편지. 2001.9.10.

Process of Jeju 4·3 —Focusing on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Ho-joon Huh

(Senior Researcher, Jeju 4·3 Research Institute)

Key words : Jeju 4·3 Uprising, 5·10 election, scorched-earth operation,
mass slaughter, strong clampdown.

This paper aims to find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in the process of Jeju 4·3, focusing on the meaning of 5·10 election during Jeju 4·3 uprising. Seeing the success of 5·10 elec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South Korea as essential achievement,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USAFIK) and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MGIK) made every kinds of efforts to do it. But, in spite of the efforts of the United States, Jeju was remained only failure of the election in South Korea.

It is the first aim to resist the election in view of the leading group of the uprising. but, the failure of the election was one of the main causes that U.S. lead to strong clampdown. U.S. knew that Jeju islanders were mass slaughtered during the scorched-earth operation, but, they did not resist these bloody killings. The interest of the U.S. is the resist of communists forces and the success of 5·10 reelection in 1949.

KCS I